

Daily Auto Check

2022. 11. 23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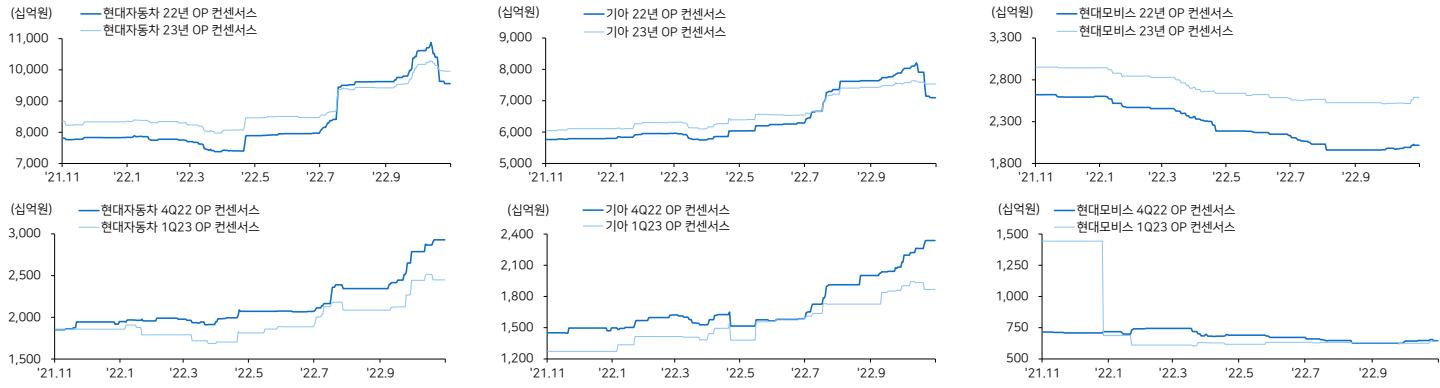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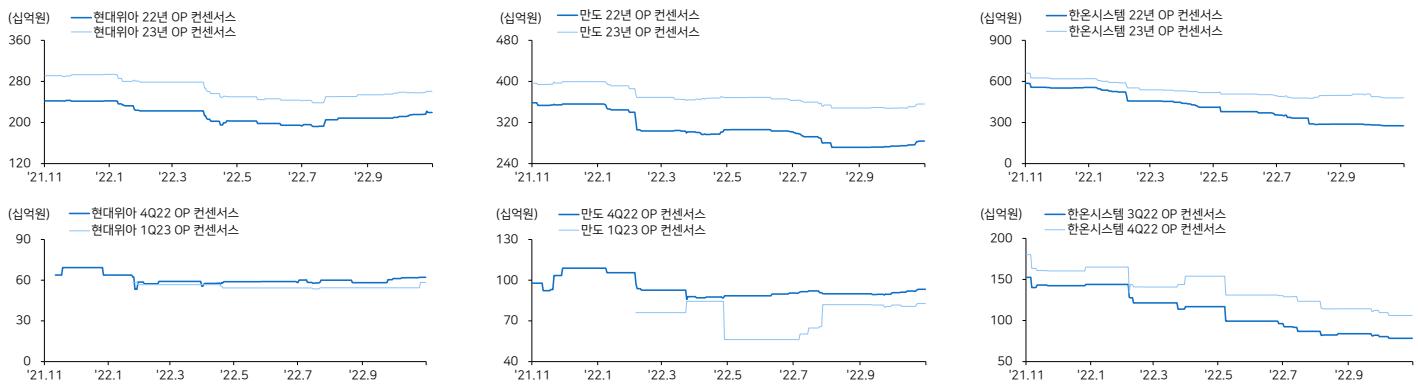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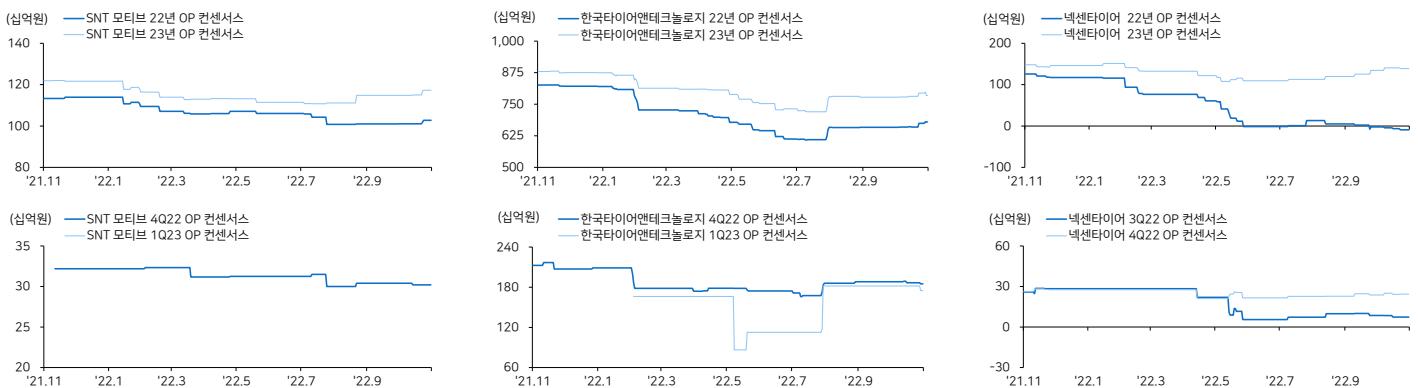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 '옛말되나 (뉴스토마토)

23일 혼다일리가 11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신차 프로모션, 연식 변경 모델 출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 차종에 대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신차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가격 하락 중.

<https://bit.ly/3EvIwU7>

통신3사·차업계, '케넥티드카' 합동연회 속도전 (뉴스)

통신 3사와 차업계가 '케넥티드카' 시스템 합동연회를 개최했다. 텔레마테틱스 회선을 공급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VI) 플랫폼을 공급하는 텔레마테틱스 회사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VI) 플랫폼을 공급.

<https://bit.ly/3Os0uNk>

China NEV Insurance registrations in 3rd week of Nov: BYD 44,874, Tesla 14,366, NIO 3,325 (CNEV)

중국의 NEV 보험 등록으로 추정한 11월 3주차 판매량은 BYD는 44,874대, Tesla는 14,366대로 1,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 등록 수지는 시장으로 인해 실질 인도량보다 소폭 낮게 측정되는 경향 존재.

<https://bit.ly/3EVfIha>

Volkswagen sees China sales on par with 2021 as lockdown impact lingers (Reuters)

VW는 2022년 중국 내 판매가 기준의 385만대에서 약 330만대로 정체될 것으로 하향 조정한 전망을 내놓음. 생산량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상반기 부족분을 만회하기 쉽지 않으며, ID EV 판매는 계획대로 작년 수준의 두 배를 기대한다고 언급.

<https://reut.rs/3ERkk1h>

인텔 모빌아이, 세계 8위 車부품기업 '발레오' 손 잡는다 (THE GURU)

인텔의 자율주행 사업부 자회사 모빌아이와 프랑스 부품사 발레오가 동맹을 강화, 양사의 기술력이 결합된 ADAS를 앞세워 자율주행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 발레오의 전면 카메라 시스템에 모빌아이의 SoC를 탑재될 계획.

<https://bit.ly/3i4CMKO>

'전기차는 대용량 이동식 배터리' 미래차 개념 바꾸는 V2L 기술 (머니투데이)

자동차 업체들과 각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이동이 가능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https://bit.ly/3gt1V3>

Tesla tries to quash rumor of low demand in China (electrek)

Tesla는 2년 만에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가운데, Tesla China는 올해 더 이상 가격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2023년 중국의 EV 세금 인센티브 정책이 변경될 수 있어 때문에 예전과 가격 정책은 수복받는 중.

<https://bit.ly/3XjP7Lr>

Berkshire Hathaway sells \$80.7 mn of shares in China's BYD (Reuters)

워런 버핏이 소유한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BYD 주식 323만주를 약 8,067만 달러에 추가로 매각. 이로 인해 버크셔의 BYD 지분은 16.28%에서 15.99%로 낮아짐.

<https://reut.rs/3ERDrl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